

세계문화유산 「華城」의 성곽내에 있는 방화수류정과 용연. 화성은 조선시대 정조임금이 1796년에 완공한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정조의 개혁사상과 「孝」정신이 깊숙히 배어있다.

세계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는 - 수원



청소행정과 과장
한 승 환

시민에게 고품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문화유산인 「華城」을 찾는 관광객과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 인프라(infra) 구축의 방안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수원시를 찾아 최근의 활동사항을 들어본다.

최초의 화장실 심포지움

지난 96년 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97년 7월과 99년 2월에 화장실 관련 전문가가 모여 한국에서는 최초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이 흐르고 꽃향기가 나는 개성과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화장실로 공공 및 다중화장실 788개소에 대한 정비를 2000년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특색있는 화장실

문화적 전통을 담은 건축양식에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19개소를 건축하였으며 여기에는 과거에 도외시되었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첨단 위생시설이 설치되고 에티켓벨, 파우더룸 설치등 기존의 공중화장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장실 개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마케팅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Tour를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청결한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7년부터 음식점소, 주유소, 상가, 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오픈화장실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수상된 79개소에 휘장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국내 언론기관의 보도 및 화장실 관련 수상(受賞)은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 등

해외 5개국 6개사 보도 및 16개국 28명의 외신기자가 화장실 투어(Tour)에 참여하여 세계 각 국에 소개되어 '새로운 화장실 문화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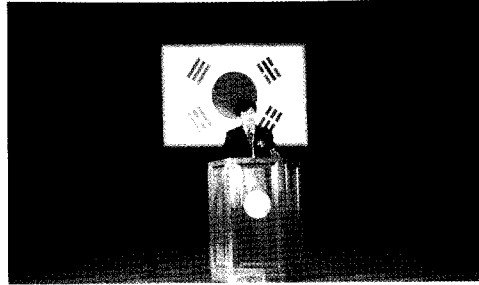
앞으로 활동방향

2000년 1월에 10,685개소 다중이용화장실 센서스(CENSUS)가 완료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장실 조례제정과 함께 신축이 어려운 시내 중심지에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 내에 화장실의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년에는 재래시장 및 어린이 놀이터 등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15개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장실 문화 개선운동은 효율적인 운영

스터/낙서·유머/말화 공모전

▲ 오후3시 장소 : 수원시청 대회의실(4층) 주최 :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



▲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회장 염태영)와 함께 공중화장실 청결사용 계도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1. 반딧불이화장실 -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99년 선정 대상
2. 향아리화장실 - 친근감과 편안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
3. 다목적화장실표시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4. 소리각화장실 - 한국관광공사 99년 선정 최우수화장실
5. 개방화장실 표시 -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개방화장실 알릴 표지판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역점을 들 예정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이 높은 시설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용빈도가 낮아 노약자, 임산부 등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화장실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9 히트행정 10선」 선정(중앙일보사) 및 시민이 선정한 우수시책 베스트 10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것에 자만하지 않고 화장실 문화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소한 것까지 배려하는 선진국형 행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